



#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10호 / '17.7.14(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 지부교섭, 막판 속도낸다

차기 교섭에서 임금 인상안 다루기로

### 무더운 여름, 교섭이라도 시원하게 하자

지부는 13일(목) 14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12차 지부교섭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축소교섭을 열어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애썼다. 비록 의견접근까지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최대한 의견을 좁혀나갔다.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안까지 논의하기로 한 만큼, 교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날씨가 무서운 속도로 더워지고 있는 요즘, 교섭이라도 시원하게 진행돼야 조합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 애매한 표현은 수정해야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자는 의지가 컸다. 14시에 시작한 교섭이 19시까지 진행되며 충분히 토론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았다. 지부가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퇴는 임금 공제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측은 법에 정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사측은 법정 감염병의 범위가 넓어서 지부가 주장한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세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공민권 행사를 위해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야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합원의 공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문구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 차기교섭에서 임금안 다룬다

임금을 제외한 지부 요구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임금교섭에 돌입하고자 했던 계획이 다소 늦춰졌지만, 지부는 차기 교섭에서는 지회별 임금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사업장별로 의미있는 내용의 임금 인상안이 제출되도록 차기 교섭 전까지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차기 교섭에서는 임금안까지 포함하여 지부요구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7월 내 마무리가 가능하다.

최근 집행부 전원 사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쉬지회도 교섭 내용이 진전되지 못하더라도 지부 교섭에서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지부도 보쉬지회 상황을 고려하여 지부교섭 마무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12차 교섭 속기록

## 차기교섭까지 임금 인상안 제출하라

**노 :**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오늘 웬만하면 임금 제외 내용은 의견접근하면 좋겠다. 7월 4주차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 보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지부교섭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 :** 칼럼을 보니 부모가 자식들한테 “아빠 믿지? 엄마 믿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그 질문 이면에는 “내 생각 알지? 동의하지?”가 숨겨져 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강요가 된다. 협상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이 안에 있는 분들 전부 협상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의견차가 있지만 조금씩 얘기를 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부교섭 사용자 내부적 조율도 힘들다. 회사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제시안을 내는 게 쉽지 않다. 할 도리는 해야 하니 많이 힘들지만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입장차가 존재하더라도 많이 논의하면 좋겠다.

**노 :** 서로 의견 다른 건 노조 내부도 마찬가지다. 추가 제시안 있으면 받고 실무 논의도 더 해보자.

**사 :** 안 준비한 것 제시하겠다.

## 〈정회 후 축소교섭〉

**노 :** 실무교섭을 했는데 안을 제출해달라. 조퇴시 임금공제에 대해선 감염병과 관련된 것만 나왔다. 아팠을 때 목적으로 한건데, 감기 등 고열을 동반할 경우를 포함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사 :** 애초 요구안에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고, 감염병에 고열이나 발진 등이 포함돼있다.

**노 :**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다. 공민권 관련해서 공적

인 사유로 출석할 때라고 했는데, 공적인 사유가 어느 범위를 말하는가?

**사 :**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 :** 구체화해야할 것 같다. 애매한 표현이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 ‘조합활동을 사유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면 지회장, 위원장만을 이야기하나?

**사 :** 지회장이 아니더라도 각 사건에 대해 조합을 대표해서 위임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노 :** 평 조합원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문구가 애매하다. 요청한 내용으로 검토해달라. 지금 더 조율할 수 있으면 기다리고, 안되면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자.

**사 :**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더 얘기하면 많이 늦어질 것 같다. 공민권 행사 요구안은 차기 교섭에서 더 논의하고, 임금을 지회별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

**노 :** 최저임금이 16일경 결정되면 다음주 중앙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임금안은 오늘 준비가 됐으면 제출하셔도 된다.

**사 :** 논의가 된 회사도 있고 안된 회사도 있다.

**노 :** 형식적으로 지부교섭에서 다루지만 지회별로 임금을 조율하는 상황인 걸로 안다. 임금안은 차기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자. 보쉬는 내부 상황이 있지만 지부교섭에는 참석하셔야 한다.

**사회 :** 차기교섭은 7/20(목) 15시 한온시스템에서 진행하겠다.